



연수에 참여한 스님들이 활발한 활동을 다짐하는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이날 법계별 승려교육에서는 10년에서 13년까지의 중덕·정덕 법계 39명의 스님들이 참여했다. 교육원은 향후 상·하반기에 나눠 같은 법계 중에서도 승급별로 세분화된 연수교육을 진행하기로 했다.

스님교육도 이젠 맞춤시대

조계종 교육원 3월 17일 법계별 승려연수교육 실시

“한국불교의 미래 우리가 이끈다! 우리가 이끈다!”

조계종 종단 연수시설인 태화산 한국문화연수원(원장 구과)에서 스님들의 힘찬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웅)은 3월 17일 태화산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종단 최초로 법계별 승려교육을 시작했다. 2010년 승려교육이 도입된 이후 각 연차별 법계에 따른 세분화된 교육의 시작이다.

‘종단리더십심화과정’을 주제로 2박 3일간 진행되는 이번 승려연수교육에는 승랍 10년에서 13년 차인 중덕·정덕 법계의 스님 39명(비구 21명, 비구니 18명)이 참석했다.

승려연수교육은 그동안 현대사회의 변

화에 맞춘 프로그램으로 호평을 받아왔지만 법계 구분이 없어 은사 스님과 상좌가 함께 연수를 받는 등 각 승랍 별 맞춤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 연수교육에서는 일선 사찰 주지를 맡을 수 있는 정덕 법계 스님들에게 리더십 교육이 중점적으로 진행된다.

조계종 교육원 연수국장 진경 스님은 “그동안 6년에서 30년차 스님들이 함께 배우다 보니, 그 법계에 갖춰야 할 소양이나 사회적 역량을 맞춤형으로 교육하는데 애로점이 많았다”며 “오늘 교육에서는 주지로 나가기 전인 정덕 법계 스님들이 종단의 실무를 배우는 단계”라고 소개했다.

한국문화연수원장 구과 스님은 “오늘 모인 스님들이 사회에서 어떤 일을 맡아도 잘

주제 ‘리더십 심화’ 정덕 법계 39명 한국문화연수원에서 2박 3일간 교육원, 세분화 연수계획 마련

해낼 수 있는 이들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종단 연수원의 책임자로서 교육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부터 실시되는 법계별 연수교육은 승랍 5~9년의 견덕·계덕의 경우 수행과 전법능력을 향상하고 종단과 사찰운영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강좌가 진행된다. 사찰 주지를 맡을 수 있는 승랍 10~19년인 중덕·정덕은 종단적 마인드를 구축하고, 전법과 포교에 필요한 신도상담·수련회 지도·지역포교 전략 등을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된다.

또 교구 및 종단의 소임을 맡는 대덕·혜

덕 법계에 대한 교육은 대사회적 마인드를 기르고 국제포교, 교구봉사 운영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중덕·현덕 법계는 종단과 불교의 역할을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는 교육이 진행된다.

연수교육에 참여한 스님들은 맞춤형 교육 실시에 대한 기대를 표했다.

아산 해원사 주지 현중 스님은 “예전과 달리 스님들의 생각도 바뀌고 있다. 교육을 받아 역량을 키워 포교 등에 나서고자 하는 스님들이 많다”며 “승려 교육도 갈수록 체계화되며 수준이 높아져 스님들의 호응이 높다. 매년 연수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스님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이번 정덕 법계 승려교육은 본사 국장, 주지 소임에 나서는 스님들에 맞게 리더십을 길러주는 프로그램이 진행돼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령 세원사 총무 유진 스님도 “스님들이 교육을 받음으로써 사회흐름에 발 맞출 수 있다고 본다”며 “대중들이 원하는 다가가는 불교의 모습을 보여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입재식을 시작으로 참석한 스님들은 2박 3일간 연수 일정에 들어갔다. 첫 교육프로그램은 광병찬 한겨레 논설위원의 ‘한국불교의 역할과 비전’이 진행됐다. 또 덕산 스님의 ‘신도교육과 수행지도’, 흥선 스님의 ‘사찰의 문화적 가치와 활용’, 허달 박사의 ‘현대사회와 불교리더십’ 등 강좌가 진행된다.

공주=노덕현 기자 nodu@hyunbul.com

조계종 법계 어떻게 구성돼있나?

법계명(괄호 안은 비구니 법계)	승랍	자격요건
대종사(명사)	40년 이상	종사(명덕) 법계 수지자
종사(명덕)	30년 이상	중덕(현덕) 법계 수지자
중덕(현덕)	25년 이상	대덕(혜덕) 법계 수지 및 1급 승가고시에 합격한 자
대덕(혜덕)	20년 이상	중덕(정덕) 법계 수지 및 2급 승가고시에 합격한 자
중덕(정덕)	10년 이상	견덕(계덕) 법계 수지 및 3급 승가고시에 합격한 자
견덕(계덕)	10년 미만	4급 승가고시에 합격한 자

법계는 수행력과 종단 지도력의 상징으로 위계서열의 기본이다.

조계종의 경우 6가지 법계로 나뉜다. 먼저 10년 미만의 스님 중 4급 승가고시에 합격한 스님은 견덕 법계(비구니 스님 계덕)를 받는다. 10년 이상 법랍을 지니고 견덕 법계를 수지하고 3급 승가고시에 합격한 스님은 중덕(비구니 스님 정덕) 법계를 품수 받는다.

20년 이상 법랍을 지니고 중덕 법계를 수지, 2급 승가고시에 합격한 스님은 대덕(비구니 스님 혜덕), 25년 이상 법랍을 지니고 대덕 법계를 수지 및 1급 승가고시에 합격한 스님은 종덕(비구니 스님 현덕) 법계가 수여된다.

또 중덕 법계 수지 후 30년 이상 승점으로 위계서열의 기본이다. 조계종의 경우 6가지 법계로 나뉜다. 먼저 10년 미만의 스님 중 4급 승가고시에 합격한 스님은 견덕 법계(비구니 스님 계덕)를 받는다. 10년 이상 법랍을 지니고 견덕 법계를 수지하고 3급 승가고시에 합격한 스님은 중덕(비구니 스님 정덕) 법계를 품수 받는다.

20년 이상 법랍을 지니고 중덕 법계를 수지, 2급 승가고시에 합격한 스님은 대덕(비구니 스님 혜덕), 25년 이상 법랍을 지니고 대덕 법계를 수지 및 1급 승가고시에 합격한 스님은 종덕(비구니 스님 현덕) 법계가 수여된다.

교육원은 이번 중덕·정덕 법계를 대상으로 한 교육연수 또한 10년 터울이 있는 만큼 상·하반기 5년차 별로 연수를 진행하기로 했다.



2012년 11월 진행된 조계종 2급·3급 법계품수식 (현대불교 자료사진)



참석한 스님들은 ‘리더십 강의’, ‘사찰운영 방법’ 등 사회 흐름에 맞는 맞춤형 강의를 수강했다.



입재식에서 스님들이 연수 이후 배운 이론을 바탕으로 한 활발한 전법활동을 다짐하고 있다.



저작권자 상표권자 정 흥 교 (법화 중헌)

저자는 경주불교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교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구단구궁법대학

경기도 화성시 인안동 538-3 (서울지하철 1호선 병점역 앞) ☎ 전화 010-7415-0803

인터넷 검색창 : [구단구궁법](#)

수강생모집

전국 서울. 수원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 40-0863341호
서비스등록번호 : 41-0213393호
저작권등록번호 : C-2011-003967호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신문,인터넷, 정·부정기 간행물, 도서, TV, 유·무선라디오 광고 및 교재 무단복제, 강의하면 민형사상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 저작권 : 5년이하 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상표법 : 7년이하 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강 의 일정표
◇ 제 1일 - 구단구궁의 제법칙
◇ 제 2일 - 구단구궁비결 문구해석
◇ 제 3일 - 교재 중심(일련의 사태 재해석)
◇ 제 4일 - 구단구궁공신의 제법칙
◇ 제 5일 - 구단구궁 실천감정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동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연계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우체국 601401-01-001843 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